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8. 제바달다는 누구인가

제바달다는 불교의 역사에서 최대의 악인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도저한 악인도, 온전한 선인도 되지 못하고 야누스적인 이면성을 겸비한 채 불교사 최대의 악인으로 회자되고 있는 그의 속업은 무겁고 가혹하다. 한역 불전은 제바달다는 부처님의 부친인 정반왕의 동생, 감로반왕의 아들로서 아난다의 형이다. 사촌인 석존보다도 20세 아래이며 석존의 성도 후 6번째 되는 해에 불교 교단에 출가하여 12년간 수행하였으며 승경과 좌선에 게으름이 없었고 고한다. 그러나 석존의 지위 계승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점차 악심이 생겼으며 장로들이 제바달다에게 신통력을 전수하기를 거부하자 6사외도 가운데 한 사람인 프라나 카사파에게 접근하여 신통력을 배웠다. 그 후로 신통력을 이용하여 아자타사투 태자에게 접근하여 점차 세력을 키웠다.

제바달다는 석존계 교단의 지도권을 몰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석존은 "그대보다 뛰어난 사리불과 가

명맥은 상당히 오랜 기간, 약 1천년간 독자적인 경전과 예배 형태, 사원을 유지하면서 존재해왔다. 즉 5세기의 법화(法華)와 7세기의 현장(602-664)은 자신들의 인도여행기에서 제바달다 교단의 존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399년부터 13년간 인도를 여행한 법현은 중인도에서 목격한 제바달다의 교단에 대해서 "조달 또한 대중들이 있어서 항상 과거 3불개 공양 올리지만 오직 석가문불개는 공양하지 않는다"라고 <법현전>에 적고 있으며, 627-645년간 인도를 여행하며 유학한 현장은 <대당서역기> 권10에서 "카르나수바라나국에는... 별도의 세 가람이 있는데 유유 제품을 입에 대지 않고 제바달다의 유훈을 따르고 있다"고 적는다. 또한 의정(635-713)은 <근본실업유부백일갈마> 권9에서 당시 인도에서 제바달다파의 생활과 불교교단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자신이 수학하던 나라타사 대학에서 함께 공부한 제바달다파와 나누었던 대화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처럼 제바달다파는 1천 여년 이상 불교교단과 함께 공존했던 것이다. 제바달다는 붓다의 근친자로서 교단을 분열시킬 정도로 강한 개성을 갖고 있었으며 붓다를 해치고자 한 악인이라는 점은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제바달다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즉 최악으로 얼룩진 인간의 어두운 면이 무겁게 투영된 악인 모습과 반면 뛰어난 지성과 카리스마를 가진 이단적 수행자의 모습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바달다의 모습 또한 이 양면이 교차하면서 반영자, 악인으로 낙인찍힌 인간인 것이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큰 정신은 악인 제바달다를 용서한다.

<법화경> 제바달다품 등 여러 대승경전에서는 제바달다는 "대법(大法)을 구하는 과거세의 석존을 지도한 대선지식이었으며 부처님은 제바달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불할 수 있었다"고 적고 있다. 또한 무량겁이 지나면 제바달다 또한 성불할 수 있다는 수기를 내림으로써 제바달다를 용서하고 있다. 불교는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제바달다까지 용서함으로써 더욱 불교다운 자비의 이념을 철저한 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 경학회 회장

정성쌍인 이 공양 약 삼아 道 이루리

참불자의 길 먹는 일도 수행

먹어야 산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식사하는 단순히 배를 불리는 일 이상이다. 그 자체로 '생명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수행자에게는 일반인들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 스님들이 식사할 때 행하는 식사법을 발우공양이라 하는 데, 이는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다. 수행의 한 과정으로 행해지며 사찰에서는 필수다.

발우공양할 때 암송하는 <소심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먹는 일에 담긴 숭고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소심경>에는 부처님을 회상하면서 그 공덕을 찬탄, 공경, 예배하는 마음과 모든 중생의 노고와 은혜를 고맙게 여기는 감사의 마음, 그리고 모든 배고픈 중생들과 똑같이 나누어 먹겠다는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다.

<소심경>에 의한 발우공양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리에 앉은 다음 불은상기(佛想起) 또는 회향(回向)을 외운다. 이는

공양을 하기 전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뜻이다. 이어 발우 퍼는 계승인 전발계(展鉢)를 하고, 발우를 편 후 십념(十念)을 외운다. 음식을 다 받은 후에 양손으로 발우를 눈썹 위까지 올린 후 봉발계(奉鉢)하고 발우를 내려놓은 다음 "온갖 정성 두루 쌍인 이 공양을 부족한 덕행으로 감히 받습니다. 탐심을 여의어서 허물을 막고, 욕심을 지행하는 악으로 삼으며 도업을 이루고자 이제 먹 습니다"는 내용의 오관계(五觀)를 외운다.

이어 헌식을 하며 출생계(出生)를 외우고 공양을 마친 뒤 발우를 깨끗이 씻은 후 천수물을 앞에 놓고 절수계(掬水)를 외운다. 끝으로 발우를 뒤아 발우보로 묶고 다음과 같은 식필계(食畢)를 하는 것으로 공양을 마친다. "공양 들어 몸에 힘 가득히 차니 그 위엄 시방삼세 영웅이로다..."

일반 불자의 경우 수련회 등에 참가하면 이러한 대중 발우공양을 경

험할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발우공양 지도를 해 본 스님들은 여러 대중과 함께 발우공양할 때 △가만히 앉아서 먹기 미안하다고 입을 닫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음식을 가까운 사람에게 덜어주는 행위 △ 불필요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 △음식 씹는 소리를 내는 것 △너무



▶ 발우공양은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다. 수행의 한 과정이다.

를 하는 불자 가정들이 늘고 있다. 아직까지 가정에서 발우공양을 해본 적이 없는 불자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준비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활용하고 의식도 가정에 맞게 간단히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먹는 일을 도락으로만 여길 게 아니다. 수행과 기도의 연속으로 여기고 이를 실천할 때, 공양은 육체적 정신적 자양이 될 것이다.

최근 들이 가족이 함께 발우공양 김중근 기자

이단적 수행자와 악인의 두 얼굴

섭이 있다"고 거부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제바달다는 범비사라왕의 아들 아자타사투와 결탁하여 "서로 새 왕과 새 부처님"이 되자고 공모하고 아자타사투를 사주하여 범비사라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빼앗았으며 석존을 해치고자 하였다. 이 사건은 바로 정토경전 <관무량수경>의 배경이기도 하다. 또한 제바달다는 5법을 제시하여 교단의 계율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였던 이로 인해 교단은 분열되었으며, 연화색 비구니를 살해하였고, 자신이 바로 붓다라고 사칭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부터 불전은 제바달다를 5역의 대죄를 범한 극악무도한 악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바달다는 초기불교교단을 분열시켰고 상당히 많은 비구들이 그의 문하에 들어갔다. 그 예증으로서 <십송율> 권36에서는 5백명의 비구가 제바달다파에 가담했다가 제바달다의 사후, 사리불과 목련의 인도도로 다시 불교교단으로 돌아왔다고 기술한다. 그러나 제바달다파의



"다만 화두 위에서 살피십시오. 살피고 또 살피다가 잡을 곳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여 답답함을 느낄 때에 바로 힘을 써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다만 이 갈피를 잡지 못하여 답답한 곳이 바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어서 천하 사람들의 혀를 깨어 버릴 곳입니다. 결코 소홀히 듣지 마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선법(禪法)을 보통 간화선(禪話禪)이라고 한다. 간화선이란 화두를 살피는 것을 선의 공부로 삼는다는 말이다. 간화선은 그 창시자가 대혜종고(大慧宗杲) 선사인데, 바로 이 <서장>에서 자성(自性)을 깨달아 선문(禪門)에 들어가는 새로운 방법으로 간화(禪話) 즉 화두 살피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화두란 공안(公案)이라고도 하

'서장' 통한 선 공부 35

증종승(曾宗丞)에 대한 답서

눈앞에 다가오는 것에 속지 않을뿐



김태완 부시대 강사·철학

며, 주로 선사들이 문답한 일화가운데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말이나 행위를 가지고 하나의 문제로 삼는 것이다. '화두를 든 다(禪話)' 혹은 '화두를 살핀다(禪話)' 하는 말은 화두를 문제로 삼는다는 말이고, '화두 위에서 의심을 부순다(話頭上破疑)' 혹은 '화두를 깨닫는다(悟話)' 혹은 '화두를 풀어낸다(透話)'는 말은 그 문제가 풀렸다는 말이다. 화두의 문제가 풀렸다는 것은 곧 화두의 본질을 파악했다는 말이다. 화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공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로 어떤 경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화두의 의미를 뜻으로 이해하거나 어떤 느낌이나 생각의 틀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화두

를 풀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화두는 자성을 밝혀내는 방편인데, 자성은 오직 직접 체험할 수 있을 뿐, 어떤 식으로든 규정되거나 관념적으로 파악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화두의 본질이 무엇인가? 화두의 참 뜻이 무엇인가?' 라고 의심하고 의심하여 가 되, 생각나고 느껴지는 모든 답을 물리치기를 계속하는 것이 바로 화두를 공부하는 바른 방법이다. 이런 의심을 오랫동안 놓지 않고 생각 물리치기를 계속하여 그 의심이 더욱 깊어지고 간절해지면, 자신이 믿고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이 허물 허물 녹아 사라지고 마음은 의지할 곳이 없어 막막하고 답답하게 되어서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자신이 라고 할 만한 존재도 없이 기쁘라

고 깊은 골짜기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바로 이런 곳에서 힘을 잃거나 돌아서지 말고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문득 광명이 모습을 드러내어 갑자기 의심이 사라지고 감각함이 사라지며 몸이 가볍게 된다.

이 때에는 가슴에서 숨결을 가로막고 걸려 있던 장애물이 떨어지거나 것처럼, 다만 상쾌하고 가벼울 뿐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가슴 속에서 대립되고 쪼개져서 아픔을 주면 조각들이 하나도 없이 사라진 듯 하고 마음은 텅 비어서 도무지 잡을 것이 없지 않고 오히려 날아갈 듯이 상쾌할 뿐이다. 이 때까지 무거운 짐으로 매달려 있던 화두나 조사(祖師)의 말과 부처의 가르침도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고 그저 말끔할 뿐이다. 이제 화두는 풀린 것이고 화두 위에서 의심이 부서진 것이다.

이 곳에서 보면 눈앞에 나타나는 형형색색의 사물과 다종다양한 일들이 빠짐없이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며 하나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도 이 곳에서는 모두 녹아서 이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매사가 오직 이것의 활동일 뿐 다른 일이 없다. 늘 지금 이 순간 이것의 활동으로 살아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음과 지혜를 말하지도 않고, 중생과 부처를 말하지도 않으며, 깨달음이니 견성이니 하는 생각도 없고, 가르치고 배운다는 생각도 없다. 다만 눈앞에 다가오는 것에 속지 않을 뿐이다.

http://www.mindfree.net/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버들강아지 잎망울 튀우고 풀잎갈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 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동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원장 이영숙 합장

-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히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 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전화: (02) 679-5902

H·P: (011) 288-2944

자고나면 온몸이 상쾌해지는 새로운 발 건강법

몸안에 독소를 제거해주는 새로운 발건강법!!

일본대 히트상품

▲ 발바닥에 붙이고 하루 밤을 자고나면 누런 노폐물이 빠집니다.

▲ 만병의 근원인 몸속에 노폐물이 시트에 묻어져 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며 아픈 부위나 발바닥에 붙여 독소를 빼내는 방법입니다.

※ 각라진 발에 종으며 딱딱한 발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쉽게 피로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운동선수
- 항상 몸 컨디션이 불안한 분
- 가정주부
- 산후조리, 시고 저런 손발 굵어진 근육, 어깨, 무릎 머리 등이 상쾌해 집니다.

※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 선물!!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 김건순

Tel.02]455-6944, 02]453-5851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감정콩**

'金檀花' 丹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영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러리니까"

인간의 건강이 금궤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감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감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감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행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 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스님은 말했다.

“선식 감정콩은 딱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7월 29일 MBC TV 「고함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 간장병, 부인병, 피부과, 변비, 저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정성소 혈압, 저체,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당뇨 관련하여 특별 상담해 드립니다 ※

상담문의 ☎ (02)3437-8282 ☎